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6월 28일 화요일 (음 5월 24일) 제 158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정 현안 머리 맞대다

27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내 국회의원과 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 여야 3당 도내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국가예산 확보, 탄소법 제정 후속조치 등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갖고 있다. (관련기사 3면)

## 서남대 정상화 학부모-정치권 의견차

서남대를 둘러싼 정치권과 관련 학부모 등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 서남대 운영을 둘러싼 내용이 심화될 조짐이다.

서남대 의대생 학부모들은 '예수병원 원전소시에에 재정기여자 신분 반납할 것'과 '구 재단측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서남대 의대 재학생 학부모들은 27일 임시이사·총장 이하 보직교수 사퇴와 재정기여자로 나선 예수병원의 신분 반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부모들은 "내년 2월부터 인증평가 통과한 의대 졸업생만 의사고사를 칠 수 있게 한 숙청 '서남의대법'이 시행되지만 현재 학교 수준으로는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학교가 명의로재단을 탈락시키고 새로운 재정기여자로 선정한 예수병원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인증평가가 불

### 학부모, 예수병원 신분 반납 강력하게 요구

### 정치권 "예수병원 컨소시엄 재정기여자 선정 지시"

가능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대로 교육시킬 수 없는 학교에서 한 푼 더 벌겠다고 몸부림치는 지역민과 한 푼이라도 더 받게 되고 상식과 정의에 눈감는 정치인들은 결국 지역이기주의에 더름 아니고 결국 그 지역사회를 영원히 병들게 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학부모들은 2학기가 시작되기 전 최대한 빨리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정상화에 따른 평

가 및 컨설팅 작업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마무리 지어 이 혼란상태가 2학기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면서 "혼란과 분란이 지속돼 정상적인 학생 교육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2학기 등록 거부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단체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남대 의대의 경우 폐과가 확정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인근 전북대, 조선대, 원광대 의대로의 정원 외 편입이 가능해진다.

학부모들의 이 같은 의견과 달리 전북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도는 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정책협의회를 갖고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회·대학본부가 제출한 대학 정상화 계획이 교육부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

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2017년 국가예산 확보, 탄소법 제정 후속조치 등 전북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는 자리로 사실상 정치권과 공조해야 하는 핵심사항이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예수병원유지재단을 재정기여자로 선정할 안을 논의했다는 것은 전북도는 물론 전북정치권이 이를 지지한다는 의미이며 앞으로 교육부도 이를 참작할 가능성이 크다.

도 관계자는 "예수병원의 대학병원화에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 것은 오랜 역사동안 전북 의료의 한 축을 맡아온 예수병원에 대한 그동안의 애정과 최근 응급환자의 경우 대학병원이 아니면 제대로 치료 할 가능성이 약화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시장 안정화 위해 필요한 조치 시행을”

### 박 대통령, 영국 EU 탈퇴 관련 “글로벌 교역 위축 우려 구조조정 계획 이행토록 모든 역량 결집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와 관련해 “시장안정화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과 함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금요일 영국이 EU(유럽연합) 탈퇴를 선포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고 우리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향후 파운드화와 유로화의 가치가 크게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 경제여건이 취약한 상태에서 브렉시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글로벌 교역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서 신용시장에서의 자금 이탈현상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진 만큼 정부 차원의 위기대응 체계를 물샐틈 없이 유지해야 하겠다”며 “글로벌 시장이 조기에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국제공조도 강화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 건전성과 재정건전성이 높은 수준으로 시장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만큼 대내외에 우리의 대응 역량을 충분히 알리는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금 우리 경제는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브렉시트를 비롯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안보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해야 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제 더 못갸고 물러날 곳은 없다. 여기서 우리가 잘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고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순간이라고 여기고 국민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마련한 구조조정 계획과 보완대책이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수석들이 철저히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오는 28일 개최 예정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관련해서는 “재정 등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경기 흐름을 보완하고, 어려운 고용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여건을 확충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세밀하게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성주 기자

▶ 매일 INDEX

2면 도내 창업기업 500억의 돈줄 확보

## 스마트 기기 활용한 환자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전북대병원, 지방 국립대병원 최초로 운영... 잘못된 투약 등 오류 최소화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27일 지방 국립대학병원 최초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최첨단 '환자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이어 전국 국립대학병원에서 두 번째다.

전북대병원이 도입한 시스템은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인식이 가능한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를 이용해 환자의 처방정보와 투약할

약물·혈액 정보를 관리하는 최첨단 의료정보시스템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환자인식을 구두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투약과 수혈 등의 오류를 최소화해 환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의료진이 IT장비를 통해 환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실시간 정보를 확인한 후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

적용범위는 입원환자관리, 병동약제관리, 병동 검체 및 혈액관리(수

혈, 채혈, 혈액팩) 등이다.

이에 따라 전북대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병동에서 지급하는 RFID Tag를 환자팔찌에 부착하게 되며, 의료진들은 환자 손목에 부착된 RFID Tag와 약물 바코드를 인식한 후에 환자의 처방정보와 투약할 약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처방을 하게 된다.

채혈 및 수혈관리도 환자의 정보를 확인한 후 채혈 튜브 및 혈액 팩의 정보와 환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PDA로 확인 후 시행하게 된다.

병원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정확한 환자인식을 통한 환자 안전성 개선 ▲투약/수혈/환자확인 오류 제거 ▲환자에 대한 실시간 정보확인 ▲환자의 편의향상 및 의료진의 업무효율 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강명재 병원장은 “스마트 의료정보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이나 수혈 채혈 등에서 오류를 방지하고 환자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자안전문제에 대한 보고체계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제20회 **무주 반딧불축제**

The 20th Muju Firefly Festival

2016. 8. 27(토)~9. 4(일)

www.Firefly.or.kr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로 346
- 문의 063)320-5003-17

2017 무주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2017 Muju WTF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2017. 8. 22일 - 8. 30일)

2016 정부지정 최우수축제

무주군일원 남대천, 반디랜드 반딧골 전통공예문화촌 등